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2장 13-21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어리석은 자여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2일	2월 8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두려워 하라, 두려워 말라

외식의 다른 의미는, 부풀려진 자아, 다른 말로 자기 강화, 자기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과 반대되는 말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누룩이란 부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자기강화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듯이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자기 강화에 빠지지 말고 자기 부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한자의 뜻은 공경함과 두려움이 섞인 말입니다. 공경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살롬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살롬이었습니다. 살롬은 평화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숨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흠이요 먼지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 상태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날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